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5월 30일 월요일 (음 4월 24일) 제156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내 한우값 '고공행진' 농가수의 '저공행진'

통계청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
마리당 수입 31만원으로
작년대비 2만원 늘었으나
최근 값 1000만원 호가 불구
농가소득은 따라가지 못해
축산기반 붕괴위험 우려



통일을 향한 걸음
홍용표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통일사랑 라디오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을 출발하고 있다. 라디오팀은 지도와 나침반 대신 라디오의 방송 안내에 따라 정해진 지점으로 이동하는 대회로, 회담본부를 출발한 참가자들은 삼청공원을 돌아 광화문 광장까지 4km를 걸었다.

전북지역 한우농가들의 수익성이 전국적인 한우 가격 고공행진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도내 축산 유통 구조의 복잡성과 김영란법 시행 등 한우 판매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들로 인해 도내 한우 농가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축산물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마리당 수입이 29만3,000원 적자였던 것에 비하면 나아진 수익성이나 최근 한우가 마리당 1,000만원을 호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농가 소득은 높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한우번식우와 육우의 경우는 올해도 적자다. 한우번식우의 경우 지난해 마리당 순수익 58만5,000원 적자인 것에 비해 올해 19만2,000원 적자이고 육우의 경우 지난해 109만2,000원 적자가 20만7,000원 적자다. 총수입이 상승해 적자 폭은 줄었지만 농

가의 시름을 덜기엔 미흡한 수준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송아지의 가격이 상승해 총수입은 늘었지만 사육비의 증가폭이 커 송아지를 내다팔아도 번식우 사육비 대가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바닥시세가 너무 비싸 수익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유통 구조의 복잡성도 도내 축산 농가들의 시름을 한 몫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해 상반기 축산물 유통실태를 통해 소고기 유통

비율이 41.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가 낸 소고기 값 1만원 중 4,150원은 원가에 얹힌 비용이라는 것.
축산농가 입장에서 소비자의 직거래가 더 나은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암소를 키우는 김모씨(익산시)는 "직거래를 하려해도 유통 관련 허가 등 각종 규제가 너무 많다"며 "또 직거래를 위해 냉동 차량 등 고가의 장비를 갖춰야 하는 점도 영세농가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토

로했다.
실상가상으로 김영란법으로 내수 위축에 따른 축산기반 붕괴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입법 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돼 공직자와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비와 선물값을 각각 3만원과 5만원으로 제한하면 한우 소비 격감과 수입육

증가로 축산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주김제완주축협 관계자는 "한우값 고공행진에 축산농가들의 송아지 입식 의향은 높으나 사료값만 300만원 넘게 드는 송아지를 키워 출하하는 시점에 소값이 폭락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도내 축산농가들의 실제 송아지 입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한우 사육마릿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항공기에 전해지는
충격 정확히 감지

전북대, 국제 학회서
우수논문상 수여받아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소 및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연구원들이 우수 연구로 국제 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전북대에 따르면 황문영 석사과정 연구원과 한대현 박사과정 연구원(지도교수 강래형)은 항공 우주 구조물 충격을 감지하는 센서에 관한 연구로 AJSAE(Asian Joint Symposium on Aerospace Engineering) 2016 국제 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는 구조물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전기적 신호가 출력되게 하는 방식의 페인트 센서 기술 개발에 관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항공기에 전해지는 충격을 정확히 감지할 수 있어 우주항공 안전 분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해당 연구진은 이 기술개발을 주제로 2014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우수논문상, 지난해 5월 APCATS 2015 국제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하며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매일 INDEX

3면 반기문, 이제 아련의 공경대상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자 야당은 일제히 견제에 나섰다.

4면 택배 화물 영업소 소음 심각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모 택배 물류창고에서 작업하는 중장비 차량의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면 광주로 흡수된 화폐수급업무 복원

전주시가 시민들의 자존심 회복과 금융산업도시 완성을 위한 한은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복원에 나섰다.

G7 정상들, 북핵 비난·중국 견제 한목소리

경제 문제에 대한선 온도차

이비드 카메라 영국 총리들의 협조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상선언에는 재정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새로운 위기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적시에 모든 정책대응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라며 "재정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구조조정을 결단성 있게 추진하는 것에 관련해 G7이 협력해 대처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합의했다"라고 명시했

다.
그러나 도쿄신문은 G7정상들은 재정 지출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지만, 전날 회의에서 독일과 영국은 이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구체적인 경기부양 및 재정지출 확대 실행에 대해서는 각국의 방침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G7정상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밝혔다.
G7은 정상선언에서 북한이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에 심각한 위협

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2005년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향후 어떤 핵심임이나 미사일 발사도 하지 말 것과 국제 질서의 불안정화를 초래나 도발행위를 하지 말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해양안전보장과 관련해서는 "국제법에 근거하는 주장을 할 것, 힘과 압력을 사용하지 말 것, 사법절차를 포함한 평화적 수단을 추구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명하

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에 있어서는 철강 분야 등에서의 "과잉생산 능력이 세계적인 영향을 가진 구조적인 과제"라고 명기해 시장을 위한 협조할 것을 밝혔다. 이 또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한편, G7정상회의는 27일 오전 G7정상만 참가한 논의를 마쳤다. 이후 동남아시아 등 7개국 정상들을 초청한 확대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안진수 기자

정음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 우리농산물

정음 단풍미인 쇼핑몰

http://www.danpoongmall.com

정음시청 택배비 100% 지원, 전국 어느 곳이나 우체국택배 이용 무료배송
2. 회원가입 후 구매시 적립금 2% 지급
3. 매주 화요일 딱 하루! 다양한 농축산물 1일 특가 할인 이벤트 진행

청음시장이 품질을 보증하는 계절별 추천 농축산물!!!

5월	6월	7월
꿀, 녹차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귀리	단풍미인 씨없는수박, 블랙베리, 여주
8월	9월	10월
태양초고추	사과, 단풍미인 사과	단풍미인 토마토, 고구마
		11월
		등근마, 꽃감

고객만족전화 080-535-4345(무료) / 063-532-4345

네이버에서 단풍미인쇼핑몰을 검색해 보세요